

어머니처럼 포근한

숲속으로 가자

사람은 숲에서 났다.

짐승과 뒤섞여 살 때 숲은 사람을 축복해줬고

더위에는 시원한 쉼터가, 추위와 싸울 때는 따듯한 바람막이가 되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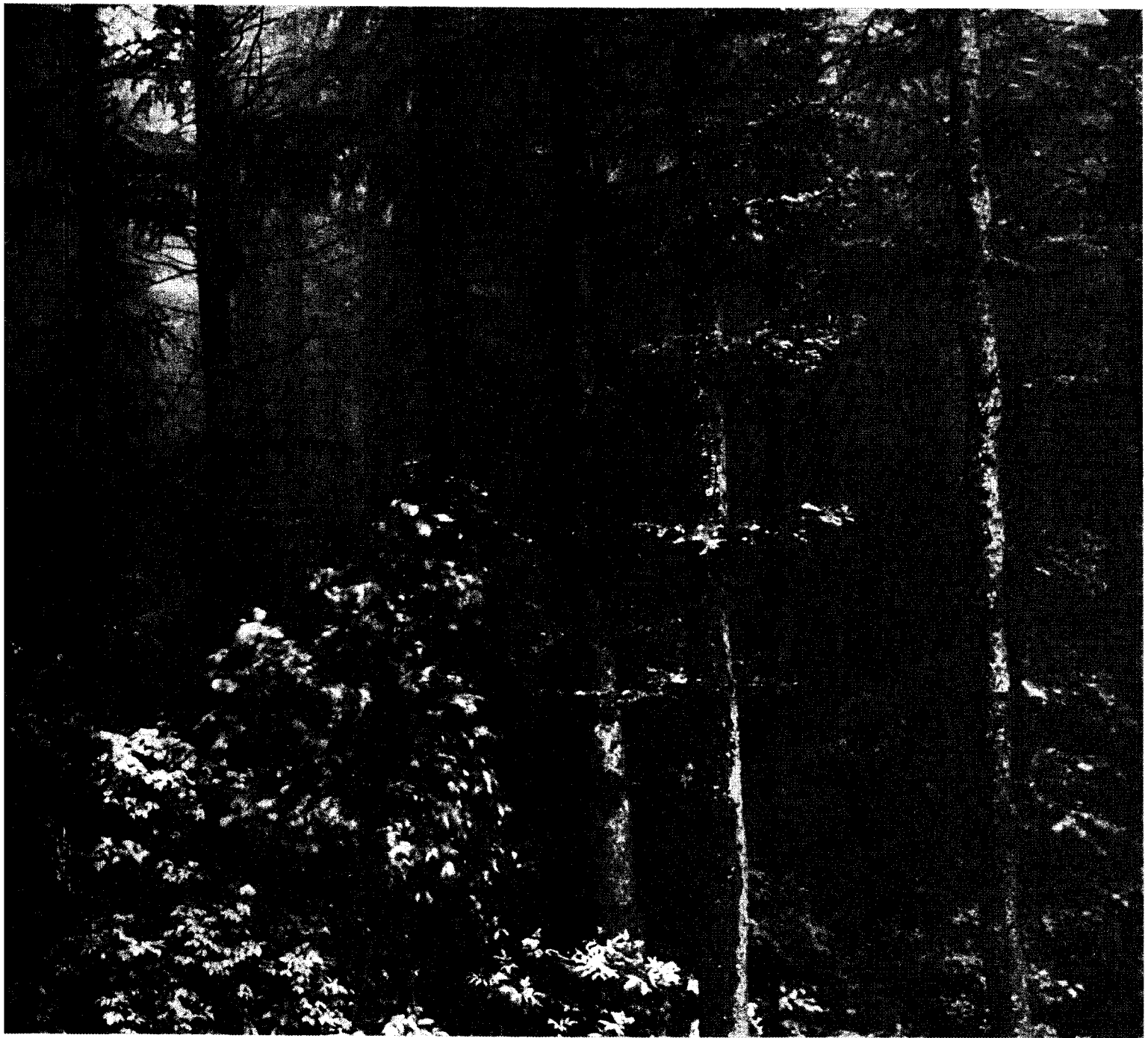
숲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인 것이다.

처음 사람이 숲을 떠나던 날

숲속의 나무를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갔다.

숲을 뚫고 도시로 나온 사람은

대기오염, 스트레스, 활성산소, 중금속의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다.



숲을 떠난 사람이 다시 숲으로 돌아가고 있다.
꽉 막힌 도시를 떠나 찾은 숲에는
평화로운 고요함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다.
다시 돌아온 사람을 숲은 어머니의 가슴으로 따뜻하게 안아준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고향을 찾는 심정으로 지금 숲길을 걸어보자.
몸속에 대자연의 힘이 스며들도록,
숲의 향기가 배이도록,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자. **MEDICHECK**